

Are You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3. 7. 6 (목)

meritz Strategy Daily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코스피 외국인 수급 쓸림에서 확산으로의 가능성

오늘의 차트

올해 멕시코 증시의 아웃퍼퓸 요인은?

칼럼의 재해석

미국 중산층 부양 부담 가중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퀸트
Analyst 이정연
02. 6454-4895
jungyeon.lee@meritz.co.kr

코스피 외국인 수급 쏠림에서 확산으로의 가능성

-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코스피 수급 주체는 '외국인'. 최근 1년간 코스피 48조원 순매수
- ✓ 특정 업종, 종목으로 외국인 수급 쏠림 나타나는 중. 지난해 하반기 2차전지 → 올해 반도체
- ✓ 반도체 업종 외국인 수급 쏠림은 업황 구조적 변화 보다 과매도에 따른 회복으로 판단. 외국인 매수세 지속될 경우, 반도체 외 업종으로 수급 확산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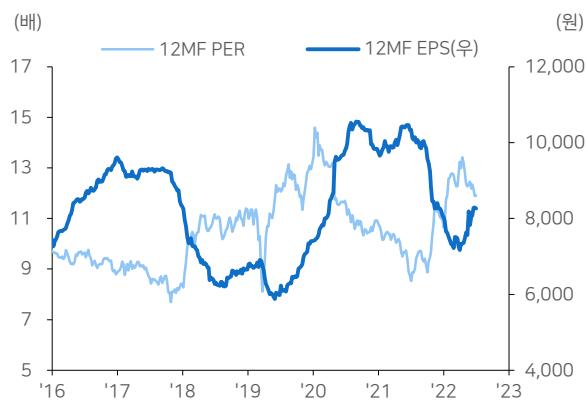
펀더멘털 개선에 힘입은 증시
상승 흐름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는 그 어느 해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MSCI ACWI 기준 YTD 수익률은 13.2%이다. 한국시장의 경우 코스피 기준 15.9% 수익률로 글로벌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최근 증시 상승 흐름은 펀더멘털에 의한 설명력이 강하다. 당사가 지난해부터 전망한 바와 같이 12MF EPS는 올해 상반기 중 텐어라운드를 시현하는 중이다. 내년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는 190조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큰 폭의 이익 하향조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EPS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이익과 밸류에이션 엇박자 흐름,
핵심은 투자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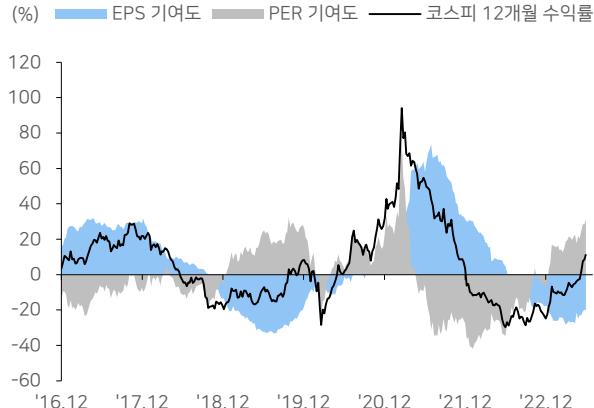
다만, 높아진 12MF PER 멀티플로 인해 이익과 밸류에이션은 엇박자 흐름이다. PER은 13배 고점 형성 이후 현재 12배 밑으로 하락했다. 결국 향후 증시 방향성은 투자심리가 핵심 요인이다. 투자심리가 강하면 펀더멘털 개선세 대비 소폭의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증시 상승이 이어질 것이나, 투자심리가 약하다면 큰 폭의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1 코스피 EPS vs PER: 12MF EPS 4월 이후 반등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최근 증시 상승은 펀더멘털 요인에 기인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수급 주체는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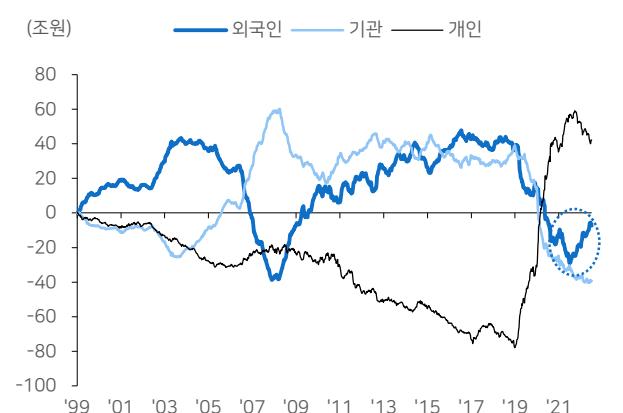
지난해 하반기 이후 코스피 수급 주체는 '외국인'

여전히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

시장 투자심리는 '수급'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해말 이어져온 반등세의 핵심 투자 주체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48조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 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들어 최근까지 22조원 순매수하며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초 이후 수익률을 상위 업종은 대부분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높게 나타난 업종이다[그림5].

이러한 외국인 순매수세로 코스피 내 외국인 지분율은 29%에서 31%로 올라 왔다. 여전히 과거 평균 34% 지분율 대비 낮은 수준인 이유는 2021년 이후 순매도 세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의 외국인 자금 유입에도 지분율은 평균을 밀드는 것이다. 만약 과거 평균수준의 외국인 지분율로 돌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외국인의 추가적인 순매수 여력은 단순 계산상 55조원으로도 추정 가능하다.

그림3 코스피 투자주체별 누적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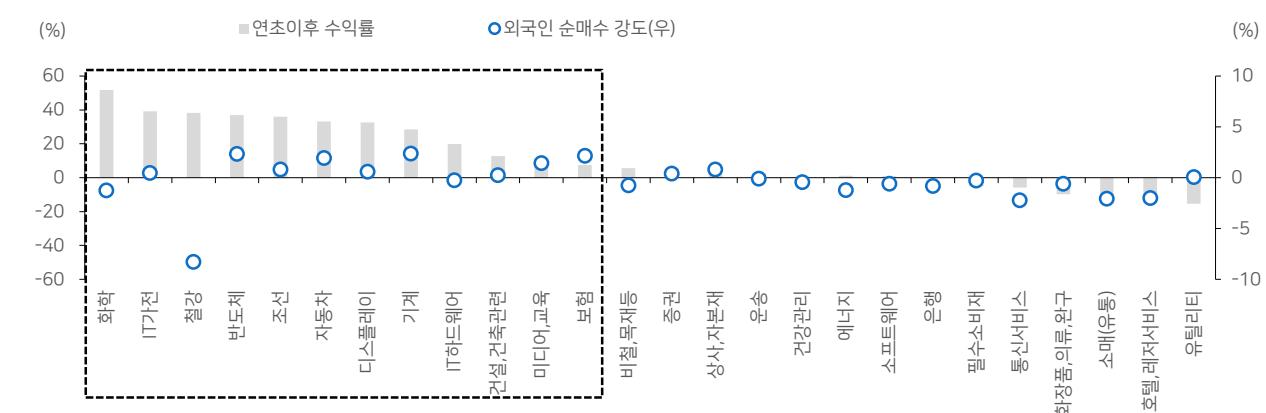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 추이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연초이후 수익률 vs 외국인 순매수 강도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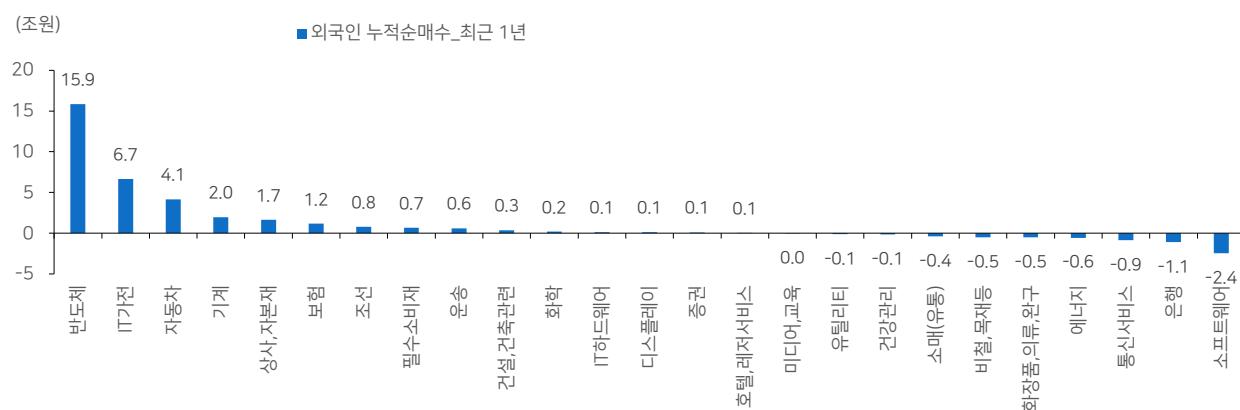
최근 수급의 특징: 업종별 차별화, '쏠림' 현상

외국인 수급 업종별 쏠림
: 2차전지 → 반도체

최근 외국인 수급이 과거와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업종별, 종목별 쏠림이 나타나는 점이다. 지난 1년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 대해 22조원 순매수 했으며, 반도체와 IT가전(2차전지) 업종을 각각 16조원, 7조원 순매수 했다. 다만, 이들 업종으로의 수급 쏠림은 시차가 있다. 2차전지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수급 쏠림이 있었다. 당시 업종 전반적으로 이익 하향조정이 나타났으나, 2차전지 업종의 이익 하향 조정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높은 이익 성장 기대감으로 희소가치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SDI, LGES을 중심으로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2차전지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세가 약해진 반면 오히려 반도체 업종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연초 ChatGPT와 같은 신성장 산업 부각으로 반도체 업황 전반의 수요회복 기대와 4월 삼성전자 감산 기대감이 더해지며, 반도체 종목 향 외국인 수급은 순매수세로 전환됐다. 따라서 최근의 외국인 순매수는 업종 전반보다는 반도체 업종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6 업종별 외국인 누적순매수 규모_최근 1년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반도체, 2차전지 외국인 누적순매수 추이_2022년 이후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수급 쓸림에서 확산으로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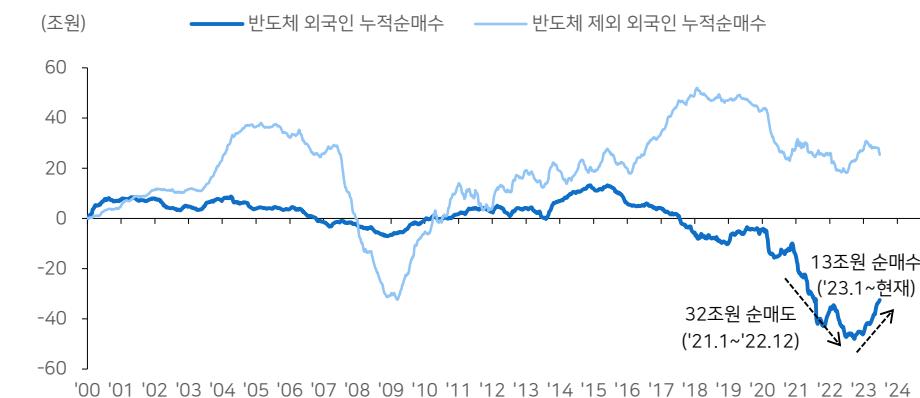
반도체 업종 외국인 수급 쓸림은 구조적 변화 기대감 보다 과매도에 따른 일시적 현상 가능성

국내투자 해외주식형 펀드 순유입 전환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지속될 경우, 수급 확산 가능성

연말에 가까워 질수록 이러한 수급 쓸림이 '확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반도체 수급 쓸림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나 2021년초부터 2022년말까지 과도한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반도체 종목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던 지난 2년간 외국인은 반도체 업종을 32조원 순매도했다[그림8]. 올해 들어서는 13조원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 과도하게 팔았던 시기의 순매도 규모 대비 최근 순매수 규모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외국인의 반도체 수급은 업황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 기대감 보다 과거 수준으로의 수급 회복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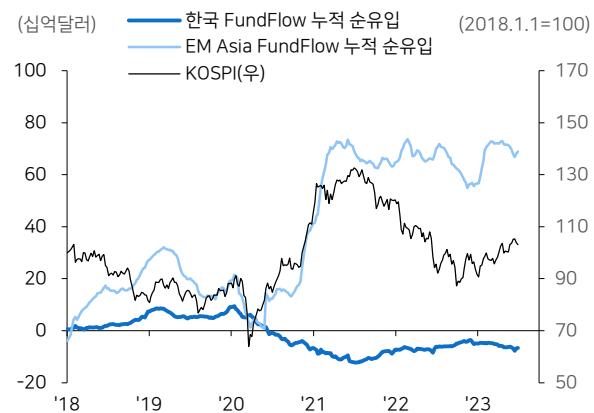
또한 아직까지 해외의 국내투자 펀드 자금의 유입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최근 외국인 수급은 2차전지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선택적 순매수로 액티브 성격이 강하다. 한국 중시 전반에 투자하는 자금이 유입될 경우 타업종으로의 외국인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됐을 때, 외국인 수급강도(누적 순매수/시가총액) 개선세는 종목 전반으로 확장됐다[그림10].

그림8 반도체 vs 반도체 제외 외국인 누적순매수 추이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내투자 해외주식형 펀드 순유입 추이



자료: Refinitiv,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외국인 누적 순매수 vs 순매수 강도 0.1% 이상



주: 최근 20일 누적 순매수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수급 확산 경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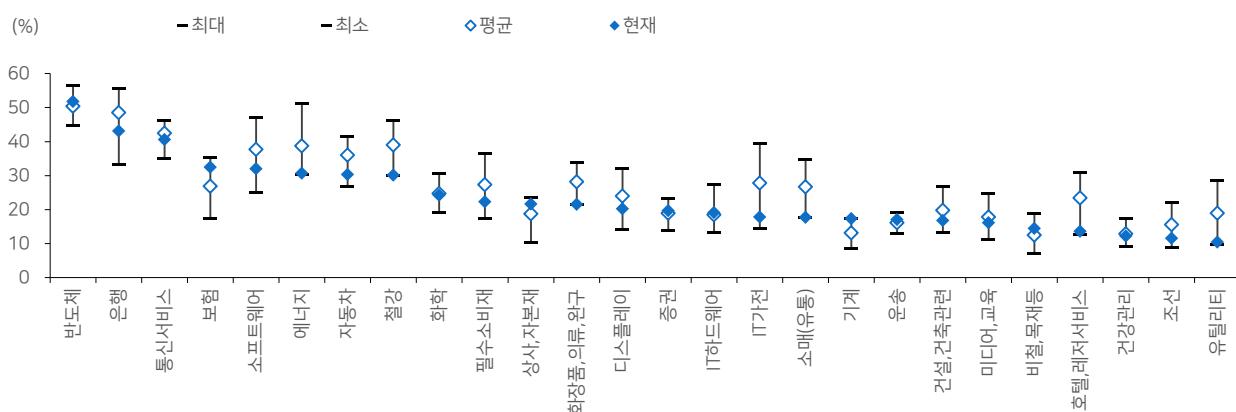
업종별 이익 매력 상대 비교 어려운 상황

외국인 지분율 과거 저점 수준 + 최근 수급 개선 업종 주목

어떤 업종으로 외국인 수급이 확산될지 예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 수급은 일반적으로 이익과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나, 현재는 업종 전반적으로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업종의 내년 이익성장은 10%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익전망치 상향조정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익만을 본 업종 상대 매력은 뚜렷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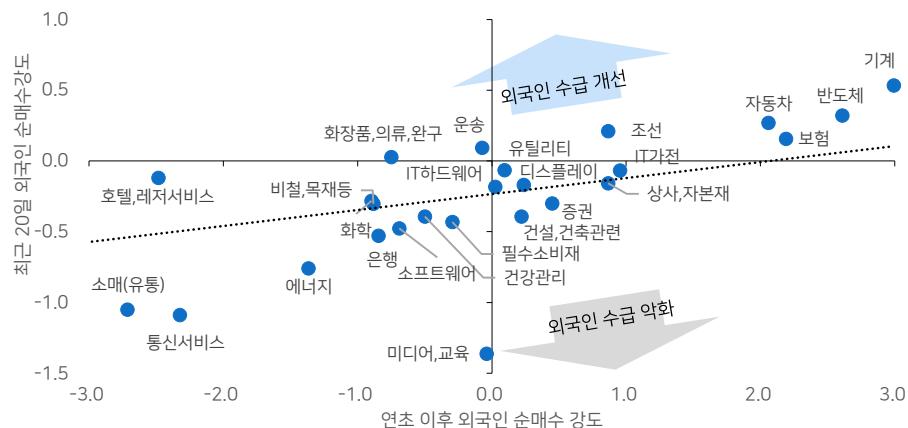
결국 외국인 지분율이 과거 대비 많이 내려온 업종과 최근 순매수세가 개선되고 있는 업종 등 변화하고 있는 현상 그 자체를 보고 수급 확산 경로를 판단해 볼 수 있다. 1) 외국인 지분율이 과거 저점 수준에 근접한 업종 중 2) 최근 외국인 순매도세가 약해지거나 순매수세로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조선, 화장품/의류, 호텔/레저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수급 쏠림과 이에 따른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난 현시점에서 높아진 주가가 부담이라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급측면에서 저평가된 업종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림11 업종별 외국인 지분율 현황_2010년 이후 최대, 최소, 평균과 비교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업종별 외국인 순매수강도 개선/악화 현황_최근 20일 vs 연초이후 순매수 강도 비교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수급 개선 종목 상위 종목 스크리닝

[스크리닝 조건]

1) 외국인 순매수 강도 개선: 최근 20일 순매수 강도 vs 연초 이후 순매수 강도

2) 외국인 수급 주체 종목: 전체 거래대금 중 외국인 비중 20% 이상

표1 외국인 순매수 강도 개선 + 수급 주체 종목 스크리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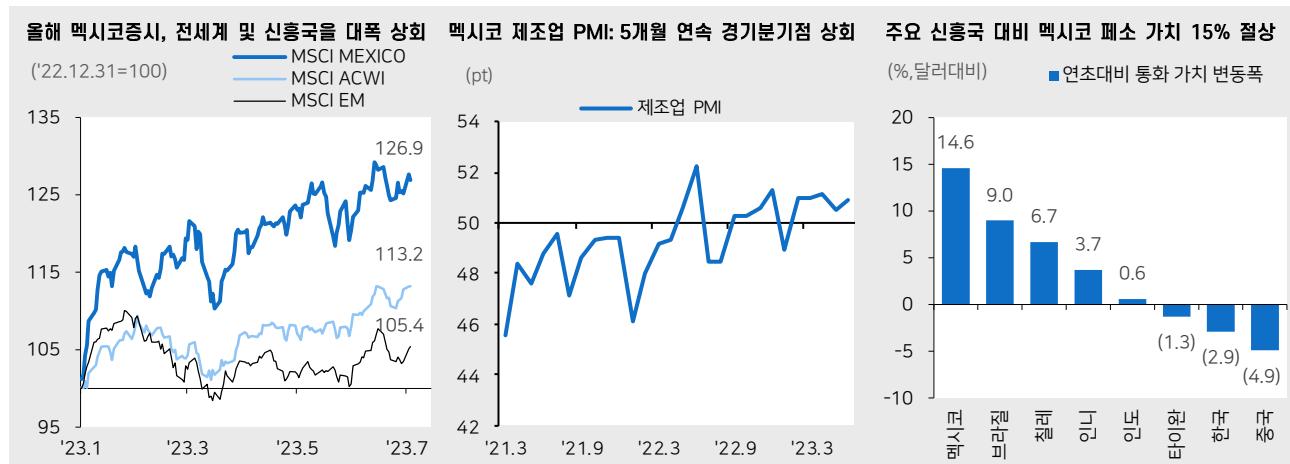
종목명	업종	외국인 순매수 강도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		P/E	P/B	ROE
		최근 20일(a) (%)	연초이후(b) (%)	(a)-(b) (%p)		2023	2024			
A090460 비에이치	IT하드웨어	-1.5	-17.1	15.6	22.3	-1.2	-2.6	7.2	1.2	19.5
A004170 신세계	소매(유통)	1.8	-12.9	14.8	35.3	-1.9	-1.3	4.3	0.4	9.0
A005490 POSCO홀딩스	철강	-1.6	-15.3	13.7	23.2	-4.7	-5.5	10.0	0.5	6.2
A000990 DB하이텍	반도체	-0.9	-13.2	12.3	20.5	1.9	11.0	6.3	1.1	21.1
A035250 강원랜드	호텔,레저서비스	0.4	-7.7	8.1	39.2	-10.3	-5.4	12.2	1.0	8.4
A012510 더존비즈온	소프트웨어	-1.0	-9.1	8.1	22.7	-0.1	-2.2	23.7	1.9	9.2
A006360 GS건설	건설,건축관련	-0.5	-8.1	7.6	32.9	-4.4	-1.7	3.8	0.3	8.1
A000080 하이트진로	필수소비재	-0.9	-7.4	6.5	38.0	-25.8	-13.7	15.3	1.3	8.6
A178920 PI첨단소재	화학	-0.5	-6.9	6.5	21.9	-28.7	-13.2	26.7	2.9	11.2
A036460 한국가스공사	유틸리티	-0.2	-5.9	5.7	25.8	-19.0	-10.2	3.6	0.2	6.2
A020150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IT하드웨어	0.7	-4.1	4.8	25.1	-43.7	-29.7	32.9	1.5	4.6
A030000 제일기획	미디어,교육	-1.0	-5.8	4.8	57.1	-5.1	-6.8	9.8	1.4	16.3
A031430 신세계인터넷내셔널	화장품,의류,완구	-3.4	-8.1	4.6	27.0	-28.8	-17.6	7.1	0.7	9.5
A010780 아이에스동서	건설,건축관련	0.2	-4.4	4.6	20.1	4.5	-0.1	5.2	0.6	13.0
A051900 LG생활건강	화장품,의류,완구	0.1	-4.0	4.0	43.6	-13.1	-12.4	16.4	1.3	8.6
A011790 SKC	화학	0.2	-3.8	4.0	28.6	-54.1	-11.5	38.7	2.0	5.7
A023530 롯데쇼핑	소매(유통)	-1.4	-5.4	4.0	53.1	-6.2	-4.4	8.5	0.2	2.4
A069960 현대백화점	소매(유통)	-1.3	-5.3	4.0	37.3	-8.9	-8.5	5.1	0.2	4.8
A036570 엔씨소프트	소프트웨어	-0.1	-4.1	3.9	39.5	-30.5	-14.8	15.2	1.7	12.3
A003230 삼양식품	필수소비재	-1.0	-4.8	3.8	28.0	-9.9	-13.1	9.4	1.5	17.1
A001740 SK네트웍스	상사,자본재	-0.5	-4.2	3.8	22.3	5.4	1.1	20.3	0.5	2.7
A030200 KT	통신서비스	-1.8	-5.5	3.8	39.5	-3.4	-2.9	5.9	0.4	7.4
A001680 대상	필수소비재	0.3	-3.4	3.6	22.2	-16.3	-8.9	7.0	0.4	6.5
A137310 에스디바이오센서	건강관리	-0.8	-4.3	3.5	46.2	-91.8	-53.1	-305.7	0.6	-0.1
A013890 지누스	건설,건축관련	0.1	-3.3	3.4	30.6	-26.2	-24.5	15.4	-	-
A079550 LIG넥스원	상사,자본재	1.3	-2.1	3.4	25.0	-3.3	-2.5	10.2	1.6	16.5
A028670 팬오션	운송	-0.3	-3.6	3.3	31.3	-19.5	-18.6	5.2	0.5	10.4
A004990 롯데지주	상사,자본재	-1.1	-4.2	3.1	31.4	-15.8	-6.3	8.7	0.2	4.2
A145720 덴티움	건강관리	-0.5	-3.5	3.0	30.0	-2.5	2.7	13.7	2.4	25.0
A241590 화승엔터프라이즈	화장품,의류,완구	-0.5	-3.4	3.0	22.8	-33.7	-20.1	9.5	0.9	10.2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최설희 연구위원

올해 멕시코 증시의 아웃퍼퓸 요인은?



멕시코 증시 연초대비 27% 상승,
전세계 및 신흥국 수익률 압도

7/4일 기준 MSCI Mexico(USD) 지수가 연초 이후 +26.9% 상승하며 MSCI EM(+5.4%)과 MSCI ACWI(+13.2%) 지수를 월등히 아웃퍼퓸했다. 이 또한 EM 내 중국(-3.7%), 한국(+16.8%), 대만(+19.9%), 인도(+5.2%) 등 신흥국 증시의 달러 기준 수익률을 월등히 압도하는 수준이다.

이는 니어쇼어링의 반사이익 때문,
글로벌 제조사 투자 증가

올해 멕시코 증시 강세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효과 때문이다. 니어쇼어링은 리쇼어링이 어려울 경우 인접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동하는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낮은 인건비로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대안 국가로 부상 중이다. 지난해 7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2024년까지 멕시코에 총 400억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테슬라(50억 달러), BMW(8억 유로) 등 글로벌 제조사들의 멕시코 투자도 늘고 있다.

이에 제조업 경기 회복 및 멕시코 폐소의 대폭 절상

이에 올해 멕시코에서 1) 제조업 경기의 뚜렷한 회복과 2) 해외 투자 증가와 함께 멕시코 폐소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6월 멕시코의 제조업 PMI는 50.9로 5개월 연속 경기분기점을 상회했다. 멕시코 폐소 가치도 연초대비 15% 상승하며 같은 기간 중남미와 동아시아 등 기타 신흥국 통화보다 양호했다. 환 강세 효과는 올해 멕시코 증시 수익률이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니어쇼어링과 정부 산업화 노력에
향후 멕시코 증시의 긍정적 전망
기대돼

멕시코 정부 또한 글로벌 움직임에 발 맞춰 기업 세금 감면과 글로벌 기업들의 물류 경로 개발 투자 유치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산업화 노력과 니어-쇼어링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멕시코 경제의 성장이 기대되면서 멕시코 증시 또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

칼럼의 재해석

이승훈 연구위원

미국 중산층 부양 부담 가중 (Financial Times)

미국 가계의 회의적 시선이 부각되고 있다. 전년대비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지속 감소했다. 현재 가계의 생활 수준 및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물음에 긍정 응답한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대비 중산층의 부양비용 압력이 가중된 데에서 기인한다. COTI(The Cost-of-Thriving Index)에 따르면 2022년 COTI는 62.1주로 1985년 39.7주와 비교해서 22.4 주 증가했다. 이는 과거대비 유사한 계층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드는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중산층의 핵심 부양비 부담 가중은 고물가·고금리에 대한 압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미시건대 내구재 구매 전망 조사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금리 부담이 지속 내구재 구매의사를 저하시키고 있다. 필수재 소비 부담과 내구재 소비 심리 부진은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대한 소비 여력 약화를 시사한다.

미국 가계의 부담 가중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회의론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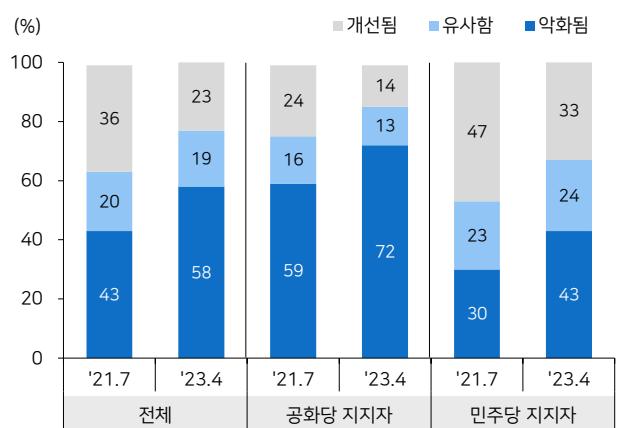
미국 경제전망과 생활수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 하락

2023년 4월 PEW Research는 미국 경제전망과 생활수준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2021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현재의 생활수준이 50년 전과 비교하여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전체 36% → 23%)은 낮아진 반면, 악화됐다고 답한 비율(전체 43% → 58%)은 높아졌다. 미래의 미국 경제를 확신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도 긍정적 응답비율이 2021년 7월 69%에서 22년 5월 68%, 23년 4월에는 60%로 계속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그 배경은 가계 비용부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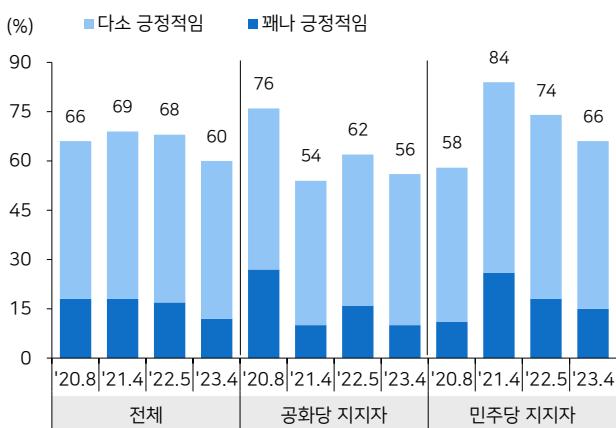
미국은 상대적으로 명품과 내구재가 싸고, 필수재가 비싼 국가이다. 이는 즉, TV, 컴퓨터 등의 고관여 내구재에 대한 접근성은 높으나 가계를 꾸리기 위한 필수재화와 서비스(주거, 의료비, 양육비 등을 포함) 부담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와 물가가 높을수록 주거비와 핵심 소비재 부담은 커지고 그만큼 미국 경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1 50년 전과 현재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면?



자료: PEW research,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래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은?



자료: PEW research,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TI: 가중되는 중산층의 부양 부담

중산층은 부양 부담 압력으로
삶의 질 악화

COTI(The Cost of Thriving Index)는 미국 내수의 핵심인 중산층(4인 가족 기준)의 필수 부양비(음식, 주거, 건강, 교통, 교육)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중산층 4인 가족 부양비를 소득 중위값(25세 이상 남성 주간평균임금)으로 나누어 과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을 표시한다. 2022년 COTI는 62.1주로 1985년 39.7주에 비해 22.4주 증가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동 기간 중 미국 중산층의 삶의 질은 36% 악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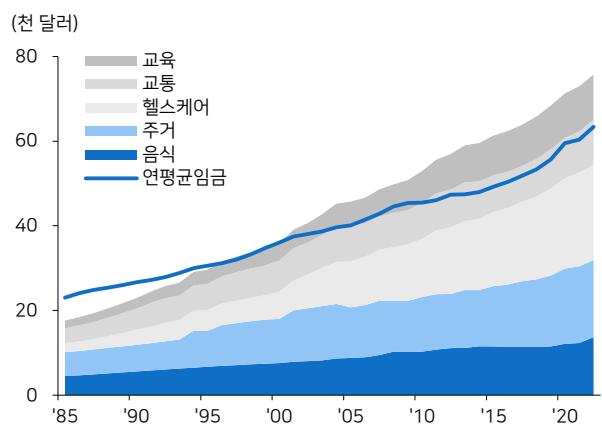
과거에 비해 미국 중산층이 동일 계층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드는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치솟는 물가로 인해 중산층 미국인들의 생계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2년 4인 가족 기준 중산층의 5개 항목(음식, 주거, 헬스케어, 교통, 교육)의 부양 비용은 75,732달러로 2021년(72,956 달러) 대비 3.8% 상승했다.

표1 COTI 각 항목별 집계 기준

구분	내용
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노동부 Thrifty Food Plan Mix 균형잡힌 식단을 구성하기 위한 비용 중 최고 및 최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값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HUD(주택도시개발부) Fair Market Rents 중위수 방 3개 집 기준 공정 임대료(최근 이주자의 gross rent와 최근의 임대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ss rent: 주거비와 통신, 유성TV 등을 제외한 주거 제반 비용을 포함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KKF(미 헬스케어 리서치 기관)의 노동자 기준 보험료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보험센터(CMS)의 건강 관련 지출 상승률 반영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교통부의 자가용 통계 인용 15,000마일/년 운전할 때 드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비: 보험, 세금, 감가상각비, 이자 등 * 변동비: 연료, 유지·보수 비용, 타이어 교체비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교육부 통계 인용 공립대(주립대) 기준 등록금, 주거비, 학생회비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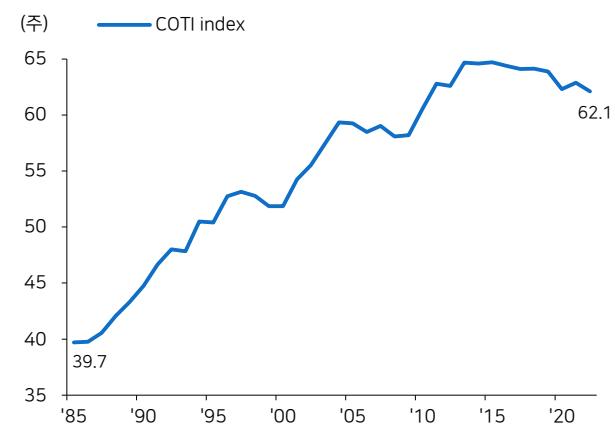
자료: American Compass Research,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미국 중산층 부양비와 평균 임금 추이



자료: American Compass Research,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COTI Index(The Cost-of-Thriving Index)



자료: American Compass Research,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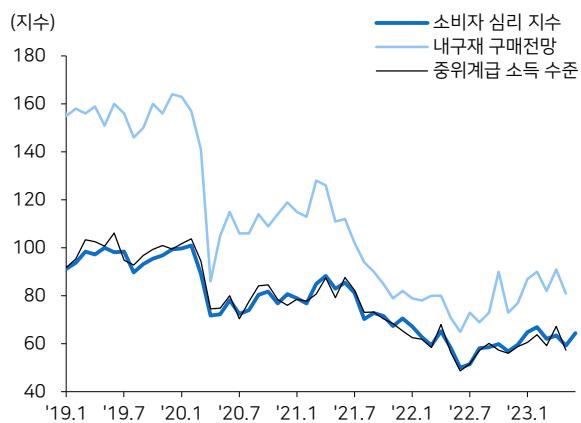
중산층 생계비 부담 지속될 것

중산층의 부양비 부담은 2023년에도 가중되고 있다. 미국 5월 식품 물가지수는 전년말 대비 1.7% 상승하였다. 주거비의 경우 COTI가 반영하는 공정임대료(방 3개)의 측정값이 전년(18,204달러)보다 14.2% 증가한 20,796달러를 기록했다. 헬스케어의 경우 해당 항목의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말 대비 1.1% 하락했지만 높은 의료비 및 민간보험 의존도가 견인하는 과거의 구조적 부담 가중('85년 대비 '22년 994% 증가)을 덜어낸 정도는 아니다.

고물가·고금리 하 부양 비용 부담
가중되며 소비여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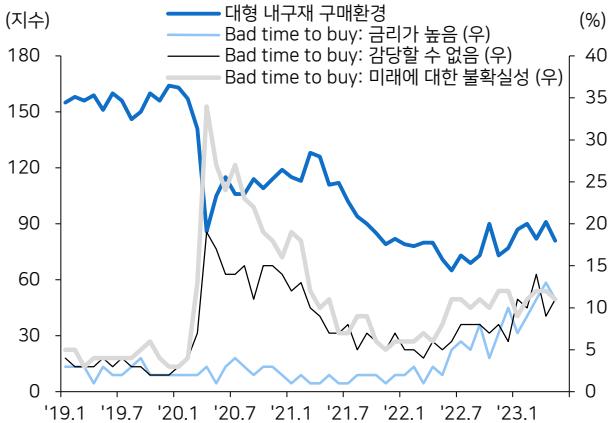
미시건대 소비자동향 조사의 세부 항목인 내구재 구매 환경 조사로 보면, 적어도 5월까지 고금리 부담이 계속 내구재 구매 의사로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내구재 구매 여유가 없음(can't afford)에 대한 응답비율도 계속 상승하면서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가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종합하면, 지금 나타나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미국 중산층의 핵심 부양비 부담 가중과 내구재 소비여력 약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5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미시건대 내구재 구매환경 조사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문: *US incomes: American way of thriving triggers sticker shock* (Financial Times)

The 2023 Cost-of-Thriving Index (American Compass Research)